

영원한 상처

김 영 숙

〈청주시 시직2동 주공아파트〉

나는 화상불구자인 남매를 데리고 사는 과부이다.

아마도 우리가족은 조물주로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억울하고 외롭고 불행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남다른 고통의 슬픔을 겪고 살아야 할 운명인 것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저서일까? 하여간 나는 인생을 저주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처음엔 원망했다.

지금까지 갖은 고통의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나와 우리아이들 남매는 감당 못할 괴로움에 지쳐 발버둥칠 때마다 기어이 이 세상을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지금까지 무슨 비극의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낮이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밤이면 조각달을 찾으면서 기구한 나의 운명을 접했다. 그러나 마음과

육신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발버둥치면서 복받쳐 오르는 설움과 배고픔의 고통을 억제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굳게 가다듬는 것이 내 노력의 전부였다. 더욱이 화상으로 인한 아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생명을 건 기도생활에서 죄인의 인종을 체험한 것이다.

6년전 1982년 12월20일.

이 날이 바로 우리가족의 운명이 뒤바뀌어진 날이다.

내가 크리스마스 준비관계로 저녁에 잠깐 교회에 다녀오는 사이 밤 9시쯤, 바로 우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7세인 아들 동현이와 6세인 막내딸이 난로불을 켜놓고 자다가 그만 과열로 인해 화재를 당한 것이다.

불자동차 소리를 듣고 아파트로 달려갔을 때는 벌써 가구가 홀랑 다 타버리고 두 남매는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하고 하늘이 노랗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날 밤 죽은 사람까지는 없었으나 연기가 자욱하여 통로를 분간못해 짐작대로만 뛰어내리다가 계단에서 연쇄적으로 곤두박질을 하거나 창으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다친 사람들이 여러명 발생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보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두 아이의 상태는 너무 처참했다.

아들 동현이는 불에 데인 몸을 식염수로 씻어낼 때마다 내는 고통스런 비명은 나의 가슴을 온통 찌셔댔다. 50%의 화상을 입은 동현이를 살려내기 위한 의료팀의 노력은 동현이를 연속 2차까지 수술대에 올렸다. 피부이식수술이 차도를 보이는 듯 하다가 「네거티브」 반응을 일으키고 「슈우도균」이 번지기 시작했다. 균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은 동현이를 기진하게 했다. 나의 가슴은 칼로 저며내는 아픔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전신을 틈하나 남기지 않고 바늘로 찢러대는 것처럼 격렬한 오열의 슬픔이 나를 연신 펄쩍 뛰게 했다. 내 자신이 불에 데인 벌레처럼 펄쩍펄쩍 뛰며 몸부림쳤다. 더구나 6살짜리 막내 계집애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어린 화상환자에게는 우선 탈수증을 막기 위해 혈관에 수분공급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어릴 뿐 아니라 전신에 거의 화상을 입었으므로 혈관주사를 어디다 어떻게 놓을 수조차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수분공급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눈물을 머금고 야기의 머리를 조금 찢어내고 거기에다 어려운 혈관주사를 봐야하는 고통을 줄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간호원들도 함께 울었다.

막내는 수술실에서 온 몸이 하얗게 붕대로 감긴 채 침대에 누여져 입원실로 들어왔다.

간호원들도 다른 환자보다 정성을 더해 간호하며 사랑해 주었다. 화상환자는 맥박이 설새 없이 뛸듯 통증이 화끈거린다는데 말도 못하는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플까? 설새없이 마구 울며 보채는 건 통증 때문에 우는 것이겠지. 나는 통곡을 하며 가슴을 쳤다.

〈불쌍한 것. 너 혼자 불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니? 어서 아픔이 물러가야 할텐데...
하나님아버지 이 죄없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어서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사뭇

하나님께 매달렸다.

한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한 후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두 아이들은 괴물같은 화상의 상처를 안은 채 집으로 와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들 동현이가 삶의 포기를 선언해 내게 너무도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철 모르는 막내 계집애는 아무것도 모르나 동현이는 날마다 얼굴모습을 거울에다 비춰보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방벽을 주먹으로 광광 치며 날뛰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또 나먼저 죽이고 죽으라고 울면서 대들었다.

동현이는 정말 제가 이제 살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죽겠다는 진지한 태도의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섬뚱섬뚱 겁을 먹으면서 달래고 설득을 했다.

이 바보야. 가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불구자라고 가치가 없란 법이 어디 있니? 사람은 누구나 불구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 육체의 불구자, 정신적인 불구자, 지식의 불구자, 교양의 불구자 등등... 그 중에 육체의 불구자는 좀 불편할 뿐이야. 절대로 조금도 열등감이나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어. 네가 정말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면 그건 「의지와 극기」를 잃은 다음부터가 될거야. 신체 장애자들도 「의지와 극기」로써 극복해 보람되고 가치있는 생을 영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봐라. 세상을 암흑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조차 모르는 저 보헤미아의 존왕은 불행 따위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 그 뿐인줄 알아. 시성 호오머와 밀턴도 그랬고 천문학자 제랄드 크라,



역사학자 푸란시스 파크만도 그랬어. 그들은 모두 눈먼 장님들이었지만 「의지와 극기」로써 불행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치있는 생을 영위한 위인들이 아니겠니? 더구나 「맹·농·아」의 삼중고도의 의지로써 극기해서 행복과 명성을 떨친 위대한 헬렌켈러 여사도 있지않니? 그런데 넌 그까짓 화상 좀 입었다고 사내대장부가 절망을 하니? 이 못난놈아 너 또 나를 울릴테야? 넌 우리집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대를 스스로 끊는다면 선대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겠니? 이 철부지야...

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날마다 반복하다시피 해서 아들을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했다. 그러는 한편 교회에 나가서 아들이 마음을 돌려서 삶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생활을 계속하며 아들도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아울러 절망감을 극복하고는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현이는 이 세상보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제 절망의 쇠사슬에 얽매었던 악몽의 어두움이 활짝 개였다.

따라서 푸른 안경을 쓰고 사방을 바라보면 모두가 푸르게 보이듯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고 보니 모두가 즐겁고 희망과 활기에 넘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이 어렵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그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이상이 있는 것임을 알았다. 힘든 환경일지라도 참고 자기 자신을 훌륭히 키워나가는 것이 희망과 행복을 얻는 길이라. 나는 그 후 뜻한 바 있어 화재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자진하여 입사했다. 화재를 당하고 난 후 발견한 나의 사명은 화재예방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화재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방심과 부주의를 틈타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불을 가볍게 알고 허술히 다루는 자와 악용하는 자를 경계하고자 화마는 그렇게도 착한 얼굴로 북병처럼 숨어있다가 보란 듯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불행의 피를 주는 것인가 보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화재사고는 항상 우리네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기만

〈불쌍한 것
너 혼자 불속에서 얼마나
놀랐겠니? 어서 아픔이
물러가야 할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없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속히 고쳐주소서...〉

하는 우리사람들의 처사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인정도 사정도 없는 불. 그러나 원수시간도 될 수 없는 불이고 보면 다만 현명한 예방의 생활화만이 최상일 수 밖에 없나 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일생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심해야될 일인가 보다.

나의 일은 보험을 모집하러 집집마다 다니며 화재예방을 역설하고 가스과 연탄불주의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상세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소화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악몽 같던 화재도 사실은 소화기만 사용할 줄 알았다면 불길을 잡을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점과 초기 화재 진압에는 소화기가 제일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함을 금치 못하며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만 반면에 무한히 어리석기도 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나 자신의 생활도 이후부터 달라졌다. 소화기 사용법을 익힌 것은 물론이고, 혹시나 또 화재가 날까 염려되어 예방을 위해 부엌 한 구석에 물단지를 놓아 방화수를 가득히 퍼담아 놓고는 수도물이 안 나올 땐 저수용으로도 겸하여 쓴다.

또한 아파트 층계를 오르내릴 때마다 소화기를 유심히 소중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이 생겨 가끔 제위치에 고쳐놓기도 한다. 또 늘 켜져있는 조그만



소방등에도 불이 켜져있지 않으면 관리인을 불러 수선하도록 알려주기도 한다. 이 조그만 꼬마등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로 인해 통로를 분간 못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부터는 소화기 못지 않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를 보고 아파트 관리인은

'모두가 그렇게 한마음으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세상에 화재란 놈이 발붙일 곳이 없겠읍니다' 하시며 칭찬을 하곤 했다.

헌데 내가 화재의 뜨거움을 겪어보기 전에 화재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 죄진 사람이 잘못을 사죄하는 심정으로 불조심의 예방과 소화기의 사용법을 지도한다.

「저어 혹시 소화기 사용법을 아시나요?」 하고 굶실대며 물어볼라치면 「이 바쁜 생활에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할 일 없어 별 신경을 다 쓴다는 식의 말투들이다.

또 소화기 사용의 상식 정도를 알 만해 보이는 신사분들께도

「저 선생님! 혹시 소화기 사용법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혹시 사용법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건방진 말투의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슬쩍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소화기요? 글썄요 거 뭐 맨 날 보긴 합니다만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데요. 허허.」

쑥스러운 듯 뒤통수만 긁적이며 웃는다.

사람들이란 불행은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이렇게 무관심하다. 그러기에 미리 불의 무서움을 알고 화재를 예방한다는 관념이 어서 속히 생활화가 되도록 더욱 지도계몽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더구나 우리 인간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그에 비례하여 동반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활문화가 발전할 수록 전기, 가스, 기름,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이 생활필수품으로 쓰여지는 만큼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전문지식을 알고있지 않는 이상 언제나 이런 문화적 소산으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에 비례하여 화재예방의 관심도 높아지지 않으면 안되리라.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서로의 연대의식을 갖는 일도 중요하다. 오늘날 서로 밀집해서 사는 주거환경이니 만큼 한 집에서 불이 난다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타인에게 불행을 줄 수 있고 타인으로 인한 나의 불행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모두가 다함께 상호 연대적인 의무로써 화재예방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